노인보건

노인병학의 개요

노인환자는 질병증상의 비특이적인 경우 흔해

노인성 질환은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점이 중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인구분포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노인학(Gerontology), 그리고 노인병학(GeriatricMedicine)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이 학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어휘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화학(Gerontology)이란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 노인학(Geriatrics)이란 노인의 건강과 사회적인 보살핌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 그리고 노인병학(Geriatric Medicine)이란 좀더 구체적으로 노인학(Geriatrics) 중에 특히 의학적인 분야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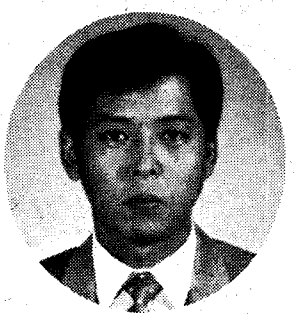
그러면 이 노인병학의 대상인 노인환자의 특성이나, 노인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성격, 그리고 활동을 기술하므로써 노인학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의 대상인 노인환자는 대개는 의료보험이나 인구학자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노인병학을 특수한 분과로 시작한 나라들에선 대개 75세 이상을 노인병학의 대상이라고 정했고, 비록 연령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성적인 장애와 질환을 가진 환자는 노인병학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마도 어떤 기준의 나이를 설정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질병과 기능의 장애를 가진 노인 환자가 대상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와 같은 대상의 환자는 여러 면에서, 눈에 띠거나 혹은 감춰진 여러가지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생리적인 회생력이 젊은 환자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합병증이 꼬리를 물고 생겨날 경우 환자의 남은 수명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노인환자는 질병증상이 비특이적인 경우가 흔하다. 예로서 감염에 걸렸으나 발열이 없는 경우, 심근 경색이 발생하였으나 통증이 없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도 불구하고 체내 대사증가의 증상이 없는 경우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환자 질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만성적이고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건강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노인학 전문의의 역할이 협의진료(consultation)를 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노인환자의 주치의적(primary care)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가지 역할을 함께 하면서 환자를 여러 차원에서 분석하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활동 기능에 대한 다영역의(multidisciplinary) 평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치료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다각도의



이 영 수
〈울산의대 내과 교수〉

여러 영역의 의료진의 공조가 필요하고, 환자가 어디에 기거하건 간에, 환자 자신의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하여 노인학 전문의란 단지 환자의 진단을 내리고 치료만 하는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건강과 기능유지를 위한 팀장으로서, 또한 관리자 및 조정관의 역할을 맡는다.

노인환자에서 동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 질병의 발현이나 경과, 그리고 진단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노인병학에서는 노인에서 흔한 다섯가지 증후군을 정의하게 됐다. 1)의인성질환 2)정신 및 판단력 장애 3)대소변 실금 4)거동장애 5)회생능력 장애 등이다.

이중에서 의인성 질환이 아마도 노인학 전문의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증후군이다. 노인환자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진단이나 약물 치료시 치료역(therapeutic ratio)이 좁아져 있거나 반전되어 있다. 특히 약물 치료시 동시에 여러 질병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쓸 경우, 이와 같은 의인성(iatrogenic) 증후군의 빈도는 약의 종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과 기능의 장애는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점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만성적 질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개념을 중요시하며, 외래나 입원환자의 급성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요양원에서의 환자 진료까지 다양한 진료능력을 익혀야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제한된 인간의 수명을 인정할 때, 인생의 마지막 제한된 삶의 시간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진료와 치료를 선택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요구에 맞게 치료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진단과 치료의 효용성에 대한 결정이 항상 노인병학 전문가의 관심거리다. 그리고 환자의 죽는 과정을 연장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하고, 안락하고 고통을 덜어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노인병학 전문의로서 노인학(gerontology)을 알고, 노화에 따르는 생리적인 변화를 이해함으로, 질병과 노화간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고, 개개인의 환자의 미래에 대한 임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 적극적으로 모든 기술을 총 동원해 환자를 치료할 것인가, 혹은 단지 관찰과 지지요법(supportive care) 만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가 바로 능력있는 노인병학 의사인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병학의 대상과 노인병 전문의사의 역할의 정의함으로써 노인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成人病新聞 創刊17周年을 祝賀합니다.

국민병원
院長 宋泰善
電話:三一一~五一一三

광산의원
院長 金昌烈
電話:一五六~〇六八四

醫療法人 길병원 吉醫療財團
理社長 李吉女
電話:四六〇~二五一〇

성애의원
院長 南宮哲
電話:八四七~八五七四

자생한의원
韓醫學博士 申俊湜
電話:五六三~〇〇三四

김경옥약국
藥學博士 金京玉
電話:四九~六七八一